

건강을 지키는 현장

건강은 농민들의 재산 목록 1호

“마산시농협조합원 건강검사 현장을 찾아서”



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지만, 육체적인 노동을 주로 해야하는 농민들에게 있어 건강은 재산목록 1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여건은, 이들의 재산목록 1호를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없는 실정이어서 관련자들의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속에서 마산시농협은 조합원들에게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농민들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있다. '88년 조합원 신체검사를 시작으로해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면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이들의 포부를 건강검사의 현장에서 들어봤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땅을 만지며 사는 우리에게 건강이 최고

복잡한 도심을 떠나 기자가 찾아간 곳은 마산시 우산동.

길게 뻗은 국도를 가운데 두고 수많은 비닐하우스를 세워 꽃동네로 이름난 우산동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건강검사를 받기 위해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난히 허리가 굽어진 “이 점분(72세) 할머니에게 기다리시느라 힘드시겠다고 말은 건네자 이할머니는 “기다리는 시간만큼 건강하고 오래산다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줄에 서있제”라며 환하게 웃는다.

늘 잔병치레하느라 남편 눈치를 본다는 정귀희(47세)씨는 “땅

“농민들에게
건강은 삶
그 자체”
라고 金根權
마산시농협
조합장은
말한다.



을 만지며 사는 우리들에게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지요. 보시다시피 이 넓은 비닐하우스에서 하루종일 일하려면 튼튼해야 하는데 나는 항상 소화도 안되고 자주 어지러워 일손을 자주 놓곤 했어요. 아뭏든 병원도 가기 어려운 실정에 이번 건협 건강검사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88년부터 조합원 신체검사를 시작으로 매년 건협 경남지부와 정기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마산시농업협동조합에서는 특히 올해에는 심전도검사, 갑상선검사 등 44가지 항목검사를 전조합원 900여명에 실시하여 건강을 지키는 직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현장

도내 여타 단위농협 환원사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

기자는 이러한 사업배경을 좀더 자세히 알기 위해 마산시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인 金根權(60세)씨를 찾아가 보았다.

“열악한 사회적 여건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육체가 큰 재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느 직종이건 어느 사람이건 건강해야 되지만, 육체적 노동을 누구보다 필요로 하는 농민들에게 건강은,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환원사업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단지 욕심을 내자면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이죠”라며 힘주어 말한다.

“물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산적해 있고 일부에서는 건강한데 무슨 건강검사냐고 회의적인 반응도 나타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질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건강검사는 앞으로 계속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지론입니다.”라며 건강검사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었다.

종합검사 실시가 가장 큰 바램

함께 배석한 조합전무 許穆씨는 “사실 저희 조합은 어려운 시기를 많이 넘겨 왔습니다. 몇년전만 해도 농민환원사업은 엄두도 못낼 형편이었죠. 그러나 조합장을 필두로 많은 조합원의 단결된 힘과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번 저희 조합과 건협경남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건강검사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큼니다. 조합의 역점사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보다 많은 재원으로 종합검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건협에서도 사후관리에 발전을 기해야만 건강검사에 대한 성과가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협 경남지부 정호철사업과장은 “우리지부 여건상 많은 집단검사를 해오고 있지만 마산시농협조합원 건강검사처럼 조합과 조합원들 간에 신뢰가 두터운 사업장도 흔치 않다”며 검사하는 기관으로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하기도 해, 자리를 떠나는 기자의 마음을 뿌듯하게 했다. ㉔

장기적인 차원에서 질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건강검사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